

독일의 현대적 박물관의 조화문제

取捨선택으로
主觀的 기준설정



任 惠 芝

〈西獨 칼스루헤大 연구원〉

2차대전후 폐허가 된 독일에서는 병원, 학교 등 필요불가결한 공공건물들을 짓기에 급급했다. 1950년대에 와서부터 조금씩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교회건축이 빛을 보기 시작하여 붐을 이루었고, 1960년대부터는 연극관건축이 성황을 이루어 각도시마다 앞을 다투어 화려한 규모의 연극관이 지어졌다. 그러다 1980년대 초반부터 박물관건축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렇다할 대작을 내지못한 연극관붐과는 달리 지금 현재 세계적인 걸작품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 박물관 건축의 역사

18세기 말엽에 유럽 최초의 박물관 건물로 KASSEL 에 FRIDERICIANUM이 지어졌다. 곧 그 뒤를 이어 19세기 초에 LEO VON KLENZE가 MUENCHEN 에 GLYPTOTHEK을 설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전문박물관이다.

그후 많은 군주나 왕들은 통치지역의 명예를 박물관, 연극관에 걸고 이 방면에 투자하였으므로 독일은 유럽에서도 가히 박물관의 왕국이라 불릴 수 있겠다.

2차대전후 전쟁복구 작업과 함께 박물관건축도 곧 관심의 대상이 되어 1950년대의 교회건축, 1960년대의 연극관건축과 병행하여 꾸준히 발전하여왔다. 1980년대 초반부터 그 피크를 이루어 많은 대도시들은 명예를 걸고 세계의 거장 건축가들을 초빙해와 저마다 개성있고 규모 큰 박물관을 짓기에 앞을 다투고 있다.

◇ 박물관 건축의 추세

FRANKFURT, STUTTGART등의 독일 대도시에는 OSWALD MATHIAS UNGERS, JAMES STIRLING, RICHARD MEIER, HANS HOLLEIN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건축가들의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들이 1980년대를 전후하여 세워졌다.

그들은 특이하고 획기적인 설계와 엄청난 공사비로 개관하기 전부터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개관후 관람객이 독일전역에서 몰려 그 수의 기록

을 올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박물관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 건축박물관, FRANKFURT, OSWALD MATHIAS UNGERS설계:전면의 1층은 옛 VILLA의 벽을 재 사용하여 옛 건물의 단 위에 올라앉은 새로운 건물의 대조가 특이하다. DETAIL은 장식을 피하고 간단, 단순하여 청교도적인 느낌을 주지만 전체를 보면 '집속의 집'이라는 주제를 시적으로 강하게 표현하였다.

▲ 시립박물관, MOENCHENGLADBACH, HANS HOLLEIN설계: 건물성격면이나 박물관의 분위기면에 있어서 종래의 박물관의 개념을 타파한 작품이다. 그 기능에 따라 재료와 형태가 각기 다른 여러개의 건물들을 조화, 배치하여 하나의 풍경화를 연출하였다. 내부 공간도 같은 이치로 다양하고 개성이 강하다.

▲ 시립미술관, STUTTGART, JAMES STIRLING설계: 전체 평면을 엄격한 고전주의 규칙에 의했으나 외형은 HOLLEIN의 건물처럼 풍경화를 연상하게하여 대칭성과 자유성의 긴장감을 연출하였다. 또한 중후한 고전적 건물전체형태와 HIGH-TECH의 세부장식 및 현란한 색채는 독특한 조화를 이룬다.

▲ 수공예 박물관, FRANKFURT, RICHARD MEIER설계: HOLLEIN이나 STIRLING의 POST-MODERNISM의 외형과는 전혀 반대로 희게 빛나는 하나의 육면체는 LE CORBUSIER의 MODERNISM의 정통과 후예라는 평을 듣고 있다. 내부공간에 있어서도 각 층을 연결하는 우아한 RAMP와 간단하고 중립적인 전시공간등은 기능주의를 느끼게함과 동시에 현대식 시대감각을 잘 표현하고 있다.

◇ 추세에 대한 토론

이러한 현상은 현재 독일에서 박물관의 사명과

건축의 본질에 대한 많은 토론을 낳고 있다.

이렇게 특이하고 재미있는 박물관 건물이 선전 효과가 되어 많은 군중을 박물관으로 끌어서 국민의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 관람객의 관심을 전시품에서 오히려 유도하여 전시공간만을 감상하고 돌아간다던가, 아예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건물이라는 이유로 박물관을 찾는 일도 있어 주객전도의 경우가 되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JOHANNES CLADDERS의 말을 빌리면, 오늘날에는 예술이 옛날의 종교의 위치에, 전시관은 신전이나 대성당의 위치에 놓여있고, 예술가는 전시관을 염두에 두고 창작활동을 한다고 한다. 고로 20세기의 전시관은 잠재적인 총체 예술품이고, 전시공간과 전시품은 화합, 일체가 되어야 하므로 전시관의 건물자체가 개성을 가진 예술품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면, 개개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면서도 전체의 분위기를 즐기는, 즉 전시작품과 전시공간이 완전히 화합하여 휩싸일 수 있는 환경 또한 바람직할 것이다.

거기에 대하여 MARKUS LUEPERTZ는 예술가의 입장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하나하나 개성있고 귀중한 예술작품들이 그 자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총괄적인 공간의 한 부분, 즉 장식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술가에 대한 모독이요, 문화발전의 저해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전시실의 사명은 어떠한 예술작품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고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하고 중립적인 공간이고, 또한 건축가의 사명 역시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건축가가 예술작품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만든다면 그 공간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면, 이는 본래의 예술품에 대한 도전이요, 예술가에 대하여 겸손하지 못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초현대식 건물은 도시 미관상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많은 건물들이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건물 자체를 조각품 같은 예술작품으로 보는 눈에는 무리가 없으나, 박물관을 하나의 기능을 가진 건물로 인정할 때는 주위환경과의 조화문제에 있어서 눈에 거슬리기 쉽다.

◇ KARLUHE 대학건축

이렇게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천차만별의 예가 난무하는 시기에 KARLSRUHE시에서는 도시 역사박물관을 유서깊은 대지 위에 계획하고 있어 KARLSRUHE대학건축과 DIPLOM졸업설계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내 용

▲ 주제: KARLSRUHE 시 도시역사박물관으로 소장품에는 서류와 사진, 가구, 미술품, 조각품, 도시모형, 건물의 모형, 민속자료 등이 있다.

▲ 규모: 대지면적 850m², 사용전시실, 특별전시실, 보관실, 휴게실, 교육실, 직원사무실, 작업실, 기계실, 수위가정집등 건물 총면적약 6,000m²

▲ 장소: 독일 서남부 BADEN지방의 유명한 건축가 WEINBRENNER가 1822년에 설계한 독일 최초의 지방의회가 2차대전시 대 공습으로 파괴된 후 공터로 남아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대지이다. 그 주위에는 역시 WEINBRENNER의 걸작인 STEPHAN성당을 위시하여 많은 고전주의 풍의 건물과 1950년대, 1970년대의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운집해 있다.

설계의 방향

이 과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보고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해답을 설계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첫째, 건축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던 옛 건물로 복원하자는 여론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둘째, 고전주의식, 근대식, 현대식 건물을 각각 이웃하고 있는 위치에서 도시 미관상 어떻게 대

처할 것인가?

셋째, 현대식 기능을 가진 도시 역사박물관의 내부구조를 위의 고려에 따른 외형과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까?

넷째, 현재 독일에서 세계적인 거장들에 의해 유행되고 있는 박물관 건축의 성격이 과연 박물관이라는 본질에 합당한 현상인가, 만약 아니라면 어떤 방향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까?

작품설명

▲ 옛 의회건물로의 복원문제: 160여년 전에 전혀 다른 기능, 즉 의회를 위하여 지어졌던 석조 건물을 콘크리트로 모방하고 박물관이라는 내용을 맞추어 넣지 않기로 하였다. 현대박물관을 그 기능에 맞게 설계하되 현대적 표현방법을 통하여 옛날 그 의회분위기를 연출하여 옛 건물을 그 자리에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향수를 달래도록 하였다. 모서리의 둥근 탑이나 고전주의 인상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예이다.

▲ 주위환경과의 조화문제: 고전주의적 주위환경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지나간 시대의 모방이 되지 않고 현대적 시대성을 살리는 길을 모색하였다. 고전주의의 원천이 되는 그리스 건축의 원리인 대칭, 면의 단순한 조화, 비례 등을 건물 외형 뿐 아니라 내부 구조에도 적용함에 있어 80년대의 독특한 표현수법과 기술을 빌었다. 1층의 유리로 이루어지는 과감한 곡선면, 던져진 주사위 모양의 출입구, 지붕위 정원과 니켈 합금속의 PERGOLA 등이 그 예이다.

▲ 내부기능 문제: 정통파적 박물관인 이태리의 UFFIZIEN관의 중립적인 형태의 전시실과 간단명료한 동선 및 내부 구조를 본보기로 삼았다. 특별한 팻말의 도움 없이도 주어진 길을 따라 가 기만 하면 모든 전시품을 차례에 맞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중앙에 위치한 층계의 곡선이 바로 그 동선을 지침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전시품이 태양광선을 피해야 하므로 전시실은 창문이

있는 폐쇄공간으로 하였다. 그 대신 중앙에는 개방공간을 두어 전창을 통해 자연채광이 됨과 동시에 안과 밖의 시각적 연결을 도모했다. 이 중앙 공간에 층계와 쉬는 장소가 있고 전시실이 U자형으로 중앙의 개방공간을 둘러싸고 있다. 개방공간과 폐쇄공간의 합리적인 배치로 전시효과를 높이고 관객의 방향감각을 도와 지루함을 덜도록 하였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F. L. WRIGHT의 달팽이 모양의 GUGGENHEIM관 역시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물 내부구조는 관람객에게 공개되는 부분 만큼은 한눈에 감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였고 각층끼리의 시각적 연결을 도모하였다. 또한 건물내부와 외부의 관계, 즉 투시관계를 중요시하여 바깥에 선 사람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일부 전시공간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천창을 통해 하늘까지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공간이 폐쇄된 전시실임에도 불구하고 안팎의 관계를 유지하여 친근감을 주기 위함이다.

전시실의 내벽은 바닥에 흠이 필요없는 이동벽을 고안하여 전시의 내용에 따라 공간의 크기를 변화할 수 있게 하였다. 이동벽에는 간접조명장치, 도난방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

▲ 박물관의 본질: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의 제공이 전시관의 본질이고, 예술가들이 특정한 전시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작품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 전시관을 짓는 건축가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시실 만큼은 중립적이고 기능적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건물전체가 무미건조하여 위화감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시실 이외에는 재미있고 친근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이하고 눈에 띄는 건물자체로 전시하는 예술품을 선전하는 것은 예술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이 총 4층의 전시층의 일부를 관람할 수 있게 하여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시품에 의한 선전효과를 노렸다.

◇ 결 론

빠른 속도로 변천해 가는 정보의 홍수시대, 무한한 가능성의 이 시대에서 모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축에 대한 개념과 건축가의 사명에 대한 견해도 무수하다. 어떤 사조가 옳다 그르다의 토론은 무의미하지만, 어떤 사조의 어떤 점을 취하고 버려서 주관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 시대에 일하는 건축가의 전제조건이다. 그 주관적인 가치기준을 설계에 옮기고 또 건물에 옮기는 것이 건축가의 직분이다.

앞에 소개한 이 설계가 얼마나 본인의 주관적인 건축관을 잘 반영했는지, 또한 그 건축관이 얼마나 성숙된 것인지는 한마디로 판단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모든 인간이 그런 것처럼 설계자의 인격이 완벽하지 못하므로 그의 작품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충고와 지적을 받아 토론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서 앞으로의 발전이 있다고 믿어 미숙한 작품을 소개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계를 하는 본인의 자세는 이웃을 좀 더 편안하게 하려는 봉사자의 자세였지, 결코 자기실현을 작품세계를 통해 추구하려는 예술가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서는 박물관 건축이 성황을 이루어 곳곳의 대도시에서 세계적인 건축가들에 의해 박물관, 미술관 등이 지어지고 있다. 서론에서 그 역사와 현재의 추세를 몇개의 예를 들어 검토하고, 본론에서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KARLSRUHE 도시역사박물관'이라는 설계로 구체화하여 소개하고자 했다. 전통건축 밀집지역에서의 현대건물의 조화문제와 박물관의 본질에 중점을 주어 다루었다. 결론에서는 복잡다사한 이 시대에 본인이 추구하는 건축가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